



8

즐거로운 민주 생활

◆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내 경험을 통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자리 바꾸기'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자리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쎄...

어떤 방법이 좋았지?



자리 바꾸기

“4학년 3반에 배정된 친구는 태형, 정국, 혜영, 소리입니다.”

선생님께서 3반으로 진급할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

“와우, 대박! 정국이와 소리랑 같은 반이네. 야, 정국이 좋겠다. 축하! 축하!”

태형이 말에 반 친구들이 정국이와 소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국이와 소리는 3학년에서 공식 커플이었는데 4학년 때 같은 반이 된 것이다.

4학년 등교 첫날, 선생님께서 자리를 정하자고 하셨다.

“선생님, 좋아하는 친구랑 앉아요. 정국이랑 소리가 커플인데요. 서로 짝하게 해 주세요. 정국이 소원이래요.”

태형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졌다.

“정국아, 태형이 말이 사실이니? 소리랑 꼭 앉고 싶어?”

“아……. 네. 짝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에 당황한 정국이는 친한 소리랑 단 한 번도 짝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 말했다.

“그래? 정국이 소원이라니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꿍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석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친하다고 같이 앉으면 둘이서 속닥거리고 수업 시간에도 떠들기만 할 것 같아요. 사실 3학년 때도 시끄러웠어요.”

같은 반에서 온 혜영이도 거들고 나섰다.

“그리고 소리는 키가 아주 작고, 정국이는 키도 덩치도 엄청 큰데, 같이 앉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정국이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야, 내가 큰 게 죄니? 큰 사람은 맨 뒤에 앉아야만 하는 거야? 칠판 글씨가 안 보이면 나가서 보면 되지. 왜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시비야?”

참고 있던 정국이가 화를 내며 지민이를 쏘아봤다.

“자, 여러분. 이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반 친구 모두가 공평하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오세요. 내일 토의를 통해 정할게요.”

선생님께서서는 알림장에 ‘공평하게 자리 바꾸는 방법’이라고 쓰시고, 가장 좋은 한 가지를 방법을 생각해 오라고 하셨다.



1 「자리 바꾸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4학년 3반 아이들이 무엇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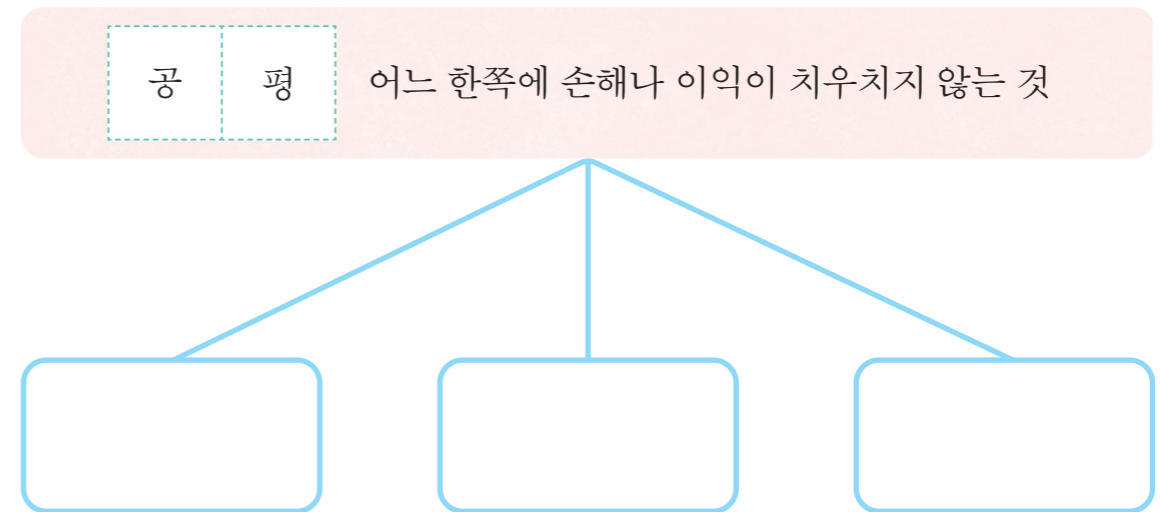
2 정국이가 소리와 앉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정국이와 소리가 함께 앉는 것을 혜영이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자리 바꾸기에 대한 4학년 3반 친구들의 의견과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의견	이유
정국		
석진		

3 ‘공평’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낱말을 써 봅시다.



4 우리 반은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바꾸면 좋을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이름	의견

5 아래 주제 중 한 가지를 골라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써 봅시다.

- 주제 1. 반 친구들 번호를 어떻게 정할까?
- 주제 2. 급식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 주제 3. 청소 당번을 어떻게 정할까?

주제: _____

구분	의견	근거
나		
친구		
우리		



●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나요?

